

최근 中東의 신흥산유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南·北 예멘 사이에 유전개발을 둘러싼 국경협상에서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유망 석유부존 지역에 대한 탐사·개발전망이 밝아지고 나아가 이지역에 대한 石油 개발업자의 관심이 다시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南·北 예멘의 공동석유탐사

최근 北예멘을 방문한 南예멘의 Al-Baidh 사회당 서기장은 北예멘의 Saleh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그동안 양국의 현안으로 되어왔던 국경문제와 이와 관련된 유전개발문제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양국의 유전지대를 포함하는 국경지역(약 850평방마일)을 비무장지대로 설정하여 군사기지를 해체하고 군대를 감축하며,

둘째, 국경 확정을 위한 양국의 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셋째, 양국의 유전지대 공동탐사와 개발을 위한 세부 협정을 계속 추진한다는 것 등이다.

양국은 그동안 국경분쟁으로 정규군과 부족민병등 사이에 잦은 충돌로 긴장이 고조되어 국경지역에 약 24,000여명의 군대를 주둔시켜 왔으며, 이것이 국경선에 걸쳐 전개되고 있는 油田지역개발에 잠재적 제약요소로 작용하여 왔다. 그러나 北예멘의 Marib油田에서의 石油발견과 생산 그리고 이 석유매장지역과 연결되었다고 주장되어온 南예멘의 Shabwa油田의 본격 개발이 양국간의 국경문제 해결을 위한 동기가 되었다.

이에 따라 北예멘은 그동안 南예멘의 前대통령인 Muhammad 와 그들의 추종자들에 北예멘에서의 적대행동을 제한하였으며, 南예멘도 北예멘의 Marib油田에 대해 北예멘 정부의 주권을 공식 인정하는 등 상호대화과 협상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노력을 보여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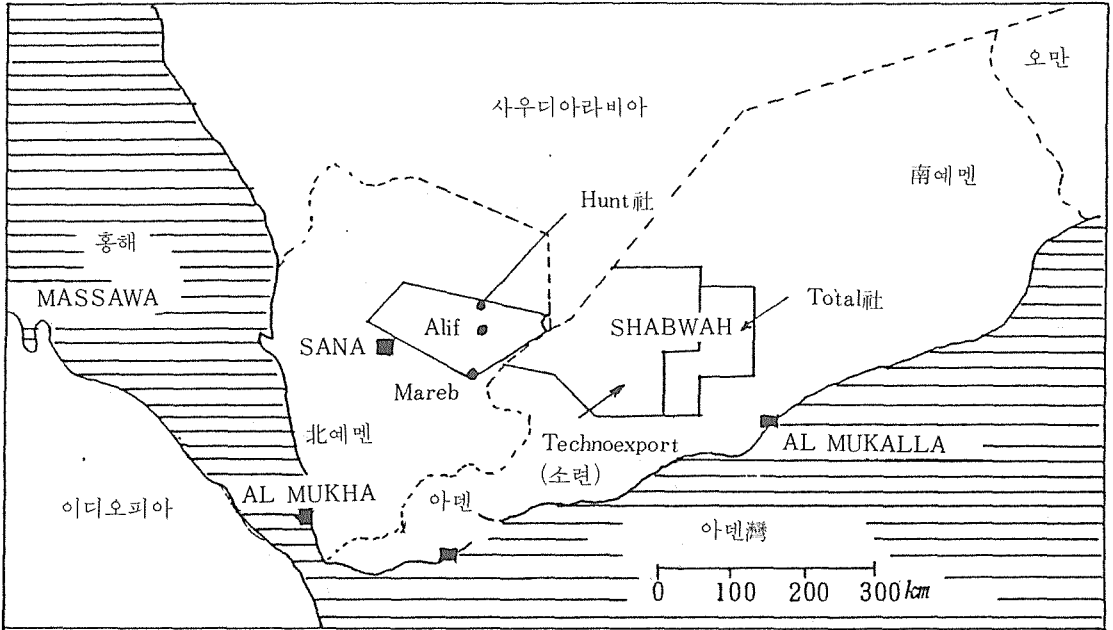
이번의 합의로 北예멘은 Marib-jawf 油田 지대에서

현재 생산중인 15萬b/d를 수개월내 20萬b/d로 그리고 향후 2년내에 40萬b/d로 증대시키려는 야심에 찬 계획 달성에 한결 유리한 입장에 놓이게 되었으며, 南예멘 또한 그동안 소련의 원조로 계획중인 Shabwa 油田, Amal 油田과 아덴항까지의 송유관건설(170~200km)로 적어도 내년부터는 原油수출이 가능하여 10萬b/d의 산유량을 유지시킬 수 있어 새로운 산유국으로 부상하는데 기대를 결 수 있게 되었다.

최근 北예멘의 Marib 油田과 南예멘은 Shabwa 油田이 같은 석유부존지역에 있다는 지질학자들의 주장과 南예멘의 Shabwa 油田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소련지질학자들이 北예멘의 Marib 광구에서 南예멘의 Shabwa 鑛區

까지 약 4,000평방킬로미터 지역에 공동탐사와 개발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양국의 공동탐사와 개발노력은 더욱 진전될 가능성을 안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 합의내용이 밝혀지지 않고 있으며, 이번 합의로 양국국경지역에서의 군사적 긴장상태는 완화될 수 있겠지만, 앞으로 구성하게 될 양국의 국경설정 공동위원회의 활동과 이에 따른 공동석유탐사와 개발등의 문제가 양국간의 정치, 외교적 입장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면서 해결되게 될지, 또, 이같은 양국사이의 관계 진전이 우리가 參與하고 있는 北예멘 石油개발 사업운영패턴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런지가 앞으로 큰 관심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휴가는 건전하게

생활은 검소하게